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5 Issue | Vol. 45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한국 FTA,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 및 무역 증대 기대 — page 1-2
- ‘무역 적자 속 악세 페소, 수출업체에 타격’ — page 2-3
- 필리핀 소매 결제의 57%, 현재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 — 필리핀 중앙은행(BSP) — page 3-5
- PPA: 항만 12곳 민영화 추진 — page 5-6
- 트럼프,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전쟁 확대... 일본·한국에 25% 관세 부과 예고 — page 6-8
- 2025년 5월, 필리핀 제조업 성장 가속 — page 8
- 단체들과 정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속도전 — page 9

UPCOMING EVENT

- [얼리버드 프로모션] 2025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page 10
- [July 30, 2025] 제1회 그랜드 트라이컨티넨트 골프 챌린지 —page 11

필리핀-한국 FTA,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 및 무역 증대 기대

July 08, 2025 | Justine Irish P. Tabile | BusinessWorld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양국 간 무역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김태형 상무관은 비즈니스월드(BusinessWorld)*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한-필 무역에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FTA는 이러한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처음 5개월 동안 한국으로의 필리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한 1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 상무관은 글로벌 환경이 개선되면 FTA가 양국 간 무역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 한국에 대한 필리핀 수출 증가와 한국의 투자 확대가 맞물려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필리핀 FTA는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성장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관은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의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은 필리핀의 최대이자 가장 중요한 투자국”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관은 “이러한 한국의 투자 급증은 한-필리핀 FTA의 발효와 함께,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A South Korea won note is seen in this illustration photo, May 31, 2017. — REUTERS

특히 그는 기업회복 및 세제 인센티브 법(CREATE Act)과 루손 경제회랑(Luzon Economic Corridor)과 같은 정부의 정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PEZA는 총 723억6천만 페소 규모의 133개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이 중 14.87%는 한국에서 유치한 투자였다.

PEZA의 테레소 오. 팡가 국장도 한국의 투자 증가가 FTA의 영향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팡가 국장은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이 협정은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한 무역 증진, 견고한 경제 협력 촉진, 그리고 특히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개발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2]

필리핀-한국 FTA,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 및 무역 증대 기대

[Cont. from page 1]

그는 “이번 FTA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며, 시장 접근성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증가, 고부가가치 생산 확대, 수출 다변화뿐 아니라 보다 깊은 경제 협력과 혁신 파트너십을 통해 필리핀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무관은 필리핀의 인력, 전략적 위치,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가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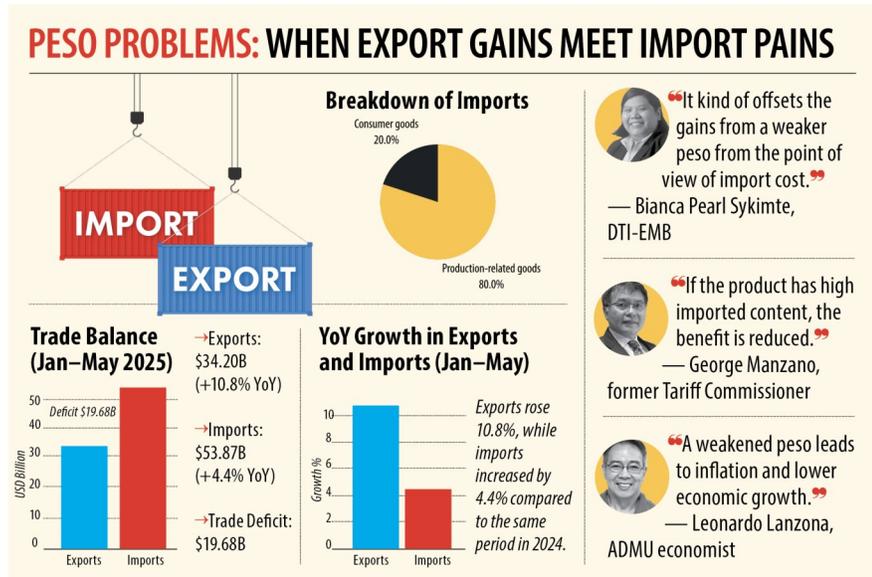
그는 “이미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조선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있었다” 고 언급했다.

“한국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필리핀과의 상호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7/08/683727/phl-korea-fta-seen-to-boost-investments-trade-as-uncertainties-linger/>

‘무역 적자 속 약세 페소, 수출업체에 타격’

July 08,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무역산업부(DTI) 수출마케팅국(DTI-EMB) 수장에 따르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페소 약세는 수입이 수출보다 여전히 많은 필리핀에서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페소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달러 수익을 페소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DTI 수출마케팅국의 비앙카 펄 R. 시킴테 국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시킴테 국장은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우리 수출업체들이 계약 가격을 설정하거나 향후 수입 비용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고 설명했다.

DTI 수출마케팅국 국장은 필리핀의 무역 구조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수입 포트폴리오를 맥락화해 보면, 소비재는 단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본재, 원자재, 중간재, 광물 및 연료로, 실제로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입니다.”

이에 대해 시킴테 국장은 “이러한 구조로 인해, 페소 약세로 얻는 이익은 수입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필리핀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페소 약세가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수출품의 달러 기준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수출 경쟁력은 수출품에 들어가는 투입재의 구성과 변동성 높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관세위원회 위원이자 경제학자인 조지 N. 만사노는 *비즈니스미러*와의 바이버 메시지에서 “수출품의 구성에 따라 경쟁력 상승의 정도가 달라진다” 고 밝혔다.

그는 “만약 수출품에 수입산 원재료의 비중이 높다면, 국내에서 조달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 비해 환율 혜택이 줄어든다” 고 덧붙였다.

[Cont. page 3]

‘무역 적자 속 약세 페소, 수출업체에 타격’

[Cont. from page 2]

페소 약세가 필리핀의 수입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 관세위원인 만사노는, 페소 약세는 수입품의 페소 기준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만사노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 수요를 위축시키고, (존재할 경우) 국산 대체품의 사용을 촉진하게 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 영향은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석유와 같이 국내 대체품이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수요 감소 효과는 더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ADMU)의 경제학자 레오나르도 란조나는, 수출품이 국내산 투입재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페소 약세가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수출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비재와 수출품의 투입재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페소 약세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 란조나는 지적했다.

전 사회경제기획장관인 단테 B. 칸라스는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페소 약세의 이점을 누릴 수는 있지만 “변동성 높은 환경 때문에 그 이익이 상쇄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칸라스는 “이러한 환경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필리핀 통계청(PS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 수익은 342억 달러로, 2024년 동기간의 308억 7천만 달러보다 10.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53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515억 9천만 달러 대비 4.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196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그만큼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Image credits: **BM Graphics: Ed Davad | Sources: PSA, DTI-EMB**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08/with-trade-gap-weak-peso-hurts-exporters/>

필리핀 소매 결제의 57%, 현재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 — 필리핀 중앙은행(BSP)

July 08,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점점 더 많은 필리핀인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화폐나 디지털 현금으로 거래하며, 이를 가장 선호하는 소매 결제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BSP의 최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디지털 결제는 거래 건수 기준으로 전체 소매 결제의 57.4%를 차지해, 2023년의 52.8%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전자화폐의 비중은 55.3%에서 59%로 상승했다.

Digital Payments Report 2024

Period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Volume	1%	10%	14%	20.1%	30.3%	42.1%	52.8%	57.4%
Value	8%	20%	24%	26.8%	44.1%	40.1%	55.3%	59.0%

Source: BSP

이 수치는 필리핀 개발계획(PDP) 2023-2028에 따라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인 52~54%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필리핀 중앙은행 엘리 M. 레몰로나 주지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수치는 “2023년 거래량 기준 디지털화 목표치인 50%를 초과 달성한 이후 형성된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 라고 밝혔다.

레몰로나 총재는 또한 이러한 상승 추세는 “시장 발전, 정책적 이니셔티브, 그리고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신뢰와 익숙함이 높아진 데 따른 장기적인 영향” 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Cont. page 4]

필리핀 소매 결제의 57%, 현재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 — 필리핀 중앙은행(BSP)

[Cont. from page 3]

케물로나 총재는 BSP가 기술과 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연결하고 “모든 필리핀 국민이 공식 금융 시스템의 일원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BSP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부문이 혁신을 활용하여 금융 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는 단지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부응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량 기준 증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맹점 결제, 개인 간(P2P) 송금, 기업 간(B2B) 공급업체 결제가 디지털 결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결제는 월별 디지털 결제 건수의 66.4%를 차지했고, P2P 송금과 B2B 결제는 각각 20.6%와 6.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세 가지 결제 유형이 디지털 거래 증가를 주도했으며, 전체 거래량의 93.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가 수행한 결제는 2024년 말 기준 97.2%가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어, 세 가지 주요 결제 사례 중 가장 ‘현금 사용이 적은(cash-lite)’ 분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이 수행한 결제는 디지털화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을 보였으며, 전체 거래의 72.2%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처리되었다.

BSP는 이러한 증가가 비디지털 결제의 감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결제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거래금액 기준

2024년 말 기준, 월별 디지털 결제 총액은 1360억 달러 또는 7조6,160억 페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소매 결제 금액의 59%를 차지한다.

세 가지 주요 결제 유형 중 정부 부문이 디지털화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된 비율이 97.2%에 달했다. 개인이 수행한 결제의 경우 디지털 비중이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전체 거래금액의 80.4%를 차지했다.

한편, 기업이 수행한 디지털 결제는 전체 거래금액의 3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의 중대한 전환을 보여주며, 필리핀이 보다 디지털로 통합된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대중의 신뢰와 디지털 결제 인프라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더 쉬워진 접근성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상호운용 가능한 시스템, 민관 협력, 그리고 사회 모든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결제 사례 개발을 통해 결제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전략적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확장은 거래를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포용적으로 만든다. 또한 이는 영세기업과 금융 소외 계층이 공식 금융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밝혔다.

또한 BSP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결제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된 접근성

필리핀개발연구원(PIDS) 연구원인 존 파올로 리베라는, 디지털 결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필리핀에서 현금 없는 거래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리베라는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성장세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향상, 소비자 신뢰 강화, 그리고 BSP의 디지털 결제 전환 로드맵(Digital Payments Transformation Roadmap)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반영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결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금융 포용의 심화와 함께, 공과금 납부, 송금, 시장 구매, 소상공인 판매 등 일상 거래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5]

필리핀 소매 결제의 57%, 현재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 — 필리핀 중앙은행(BSP)

[Cont. from page 4]

리베라 연구원은 “디지털 생태계가 더 많은 농촌 지역과 비공식 부문까지 확장되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는 2025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아테네오 대학교의 경제학자 레오나르도 란조나는 디지털 거래가 거래 비용을 낮추고 자금의 흐름을 개선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란조나는 규제와 소비자 보호 없이 디지털 거래가 확산될 경우 “사기 행위가 만연해져 많은 사람들이 이를 꺼리게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한편,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는 디지털 결제의 지속적인 증가는 특히 대중층 사이에서 전자지갑(e-wallet) 사용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자 현금이 지폐와 동전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속화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 거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적응, 배달 서비스, 차량 호출 서비스(TNVS), 기타 온라인 솔루션의 이용 증가가 디지털 거래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사용 확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리카포트는 “더 많은 필리핀인이 은행 앱을 통한 온라인 뱅킹 거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창구 거래보다 인스타페이(InstaPay)나 페소넷(PESONet)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신뢰성이 높고, 거래 비용도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특히 은행 지점이 없거나 제한적인 농촌 지역에서 금융 포용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리카포트는 “앞으로 몇 년간 금융 이해도 향상, 소득 증가,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결제 솔루션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수용 확산에 따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57-of-ph-retail-payments-now-digital-bsp/>

PPA: 항만 12곳 민영화 추진

July 07, 2025 | Elijah Felice Rosales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정부가 빠른 속도로 공항을 민영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만들도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민간 기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총 12개 항만이 전환될 예정이다.

필리핀 항만청(PPA)은 인프라 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의 일환으로 루손과 민다나오 지역의 12개 항만에 대한 PPP 절차를 완료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스타(The STAR)》가 입수한 목록에 따르면, PPA는 올해 다음의 항만들을 민간 부문에 이관할 계획이다: 발링오안(Balingoan), 하산(Jasaan), 제네럴 산토스(General Santos), 루세나(Lucena), 록사스(Roxas), 만살라이(Mansalay), 불라라카오(Bulalacao), 반수드(Bansud), 폴라(Pola), 푸에르토 갈레라(Puerto Galera), 아브라 데 일로그(Abra de Ilog), 산호세(San Jose).

발링오안과 하산 항은 모두 미사미스 오리엔탈(Misamis Oriental)에 위치해 있으며, 제네럴 산토스 항은 남코타바토(South Cotabato)에 있다.

PPA의 제이 산티아고 청장은 민다나오 항만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리엔탈 민도로(Oriental Mindoro)에는 록사스(Roxas), 만살라이(Mansalay), 불라라카오(Bulalacao), 반수드(Bansud), 폴라(Pola), 푸에르토 갈레라(Puerto Galera) 항이 위치해 있다. 루세나(Lucena) 항은 케손(Quezon)에 있으며, 아브라 데 일로그(Abra de Ilog)와 산호세(San Jose) 항은 모두 옥시덴탈 민도로(Occidental Mindoro)에 있다.

루손 지역의 항만들은 모두 타당성 조사(FS)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티아고 청장은 PPA가 올해 안에 조사와 입찰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티아고 청장은 《더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발링오안, 하산, 제네럴 산토스 항만만이 예비 재무 모델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보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항만들의 경우, 양허료(Concession Fee) 추정치는 아직 개발 중이며, PPP 법령과 그 시행규칙(IRR)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자산 평가, 구조화, 조달 전략이 확정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Cont. page 6]



The Philippine Ports Authority (PPA) is preparing to complete the PPP of 12 ports in Luzon and Mindanao as part of efforts to tap private resources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Businessworld / File

PPA: 항만 12곳 민영화 추진

[Cont. from page 5]

산티아고 청장은 PPA가 보유한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 항만을 이관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만 확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PPA가 자체적으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PPA는 인프라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민간 부문의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산티아고 청장은 이러한 역량이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운영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PA는 현재 공항과 철도 같은 교통 프로젝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민영화하려는 교통부(DOTr)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산티아고 청장은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국적인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PPP(민관협력)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리잘상업은행(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는, 정부가 항만 운영을 민간에 이관할 경우 무역업자와 여행객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파트너들이 보통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부 기관을 통해 진행할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물 이동에 있어 시간이 중요한 항만에서는 이러한 민간 투자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리카포트는 《더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항만의 민영화는 신규 투자와 확장 계획 등에 있어 의사결정을 더욱 신속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요건을 수반하는 정부의 승인 절차보다 훨씬 효율적” 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관세 인상 계획 등으로 물류 산업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항만 운영권 인수를 주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물류 둔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동안 화물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6,577만 메트릭톤을 기록했다.

한편, PPA는 지난해 일로일로 상업항(Iloilo Commercial Port Complex)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사(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와 105억 3천만 페소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항만을 민간에 이관한 바 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07/2455981/ppa-12-ports-privatization>

트럼프,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전쟁 확대... 일본·한국에 25% 관세 부과 예고

July 08, 2025 | Reuters | BusinessWorld



US President Donald Trump —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일본과 한국 같은 주요 공급국부터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와 같은 소규모 무역 파트너들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8월 1일부터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그가 올해 초 시작한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조치다.

일본과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수입업자에게 25% 관세를 부과하는 이번 결정은 월가를 강타했고, S&P 500 지수는 급락했다. 반면 아시아 금융시장은 이번 소식을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통보를 받은 14개 국가는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와 같은 소규모 수출국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 국가에 보낸 서한은 추가 협상의 여지를 암시하면서도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에 보낸 서한(본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 을 통해 공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신들이 어떤 이유로든 관세를 올릴 결정을 한다면, 인상하려는 수치만큼을 우리가 부과하는 25% 관세에 추가로 더하겠습니다.”

이번 고율 관세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기존에 발표되었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Cont. page 7]

트럼프,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전쟁 확대... 일본·한국에 25% 관세 부과

[Cont. from page 6]

예를 들어, 일본산 차량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부과된 25%에서 새로운 상호관세 체계에 따라 50%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25%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 부과한 일부 관세가 두 배로 오른 경우와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촉발한 이후, 각국은 미국과의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과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정책 결정자들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협상 시한에 대한 또 한 번의 유예가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기존의 수요일 마감일을 8월 1일까지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감일이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확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100% 확정은 아니다. 만약 그들이 전화를 걸어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고 하면,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 결과를 두고 많은 국가들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각국은 그가 경고한 고율 관세 부과를 피하려 애쓰고 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했던 수준과 같으며, 일본은 4월 2일 발표된 수준보다 1%포인트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는 이른바 '상호관세'를 수요일까지 최대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 두 나라만 미국과 합의에 도달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관세율을 포함한 협정 초안(framework)에 합의한 상태다.

아시아소사이터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부소장은,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두 곳인 일본과 한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이것이 게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커틀러 부소장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니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산 제품에 대해 25%,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는 30%, 인도네시아는 32%, 세르비아와 방글라데시는 35%, 캄보디아와 태국은 36%, 라오스와 미얀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총리는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최대 35%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8월 1일로 새롭게 설정된 시한 내에 신속히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일본 측 대응에 따라 서한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 말하며, 관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각료회의에서 이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강화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실질적으로 상호 관세 적용의 유예 기간 연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협상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의 77%가 무관세로 남아공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30% 관세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 대변인은 남아공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이는 그의 무역 조치들이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각국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든 가운데 벌어진 또 하나의 시장 혼란이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일련의 관세 발표로 인해 미국 증시는 한때 약세장에 근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4월 9일 가장 강력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면서 곧바로 반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P 500 지수는 약 0.8% 하락하며 마감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일본 자동차 기업 주식도 하락했는데, 도요타는 4% 하락, 혼다는 3.9%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달리는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Cont. page 8]

트럼프,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전쟁 확대... 일본 · 한국에 25% 관세 부과

[Cont. from page 7]

브라이언 제이콥슨(Brian Jacobsen) 애넥스 웰스 매니지먼트(Annex Wealth Management)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관련 발언이 시장의 동력을 빼앗아 갔다” 고 말했다. 그는 발표된 대부분의 관세율이 실제보다 낮춰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보낸 서한은 사실상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식의 제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월요일 앞서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것” 이라며, 자신의 이메일에는 여러 국가들의 최후 제안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블록

유럽연합(EU)은 고율 관세를 통보하는 서한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EU 관계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월요일 밝혔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수요일까지 무역 합의의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좋은 대화” 가 있었다고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전했다.

EU 내에서는 간단하고 신속한 무역 합의를 추구할지, 아니면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낼지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EU는 이미 7월 마감 기한 이전에 포괄적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는 접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브라질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브릭스(BRICS) 국가 정상들을 향해 “반(反)미국적 정책” 을 채택할 경우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브릭스 그룹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world/2025/07/08/683888/japan-south-korea-face-25-tariffs-as-trump-ramps-up-trade-war-in-letters-to-leaders/>

2025년 5월, 필리핀 제조업 성장 가속

July 08, 2025 | Jon Viktor D. Cabuenas | GMA Integrated News

필리핀 통계청(PSA)이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22개 산업 부문 중 13개가 연간 기준으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나타냈다.

PSA가 발표한 '선택 산업 통합 월간 조사(MISSI)'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생산량 지수(VoPI)는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의 4.3%, 2024년 5월의 4.2%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성장세 가속화는 식료품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이 11.2%에서 15.7%로 크게 상승한 것과 운송장비 제조업이 7.4%에서 13.5%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화학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폭이 23.8%에서 13.8%로 축소되며 전반적인 하락세가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PSA는 설명했다.

연간 기준 증가세는 다음과 같은 제조업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가죽 및 관련 제품은 62.0%, 목재 · 대나무 · 강통 · 라탄 제품은 26.1%, 담배 제품은 18.6%, 전기장비는 13.9%, 가구는 13.1%, 컴퓨터 · 전자 · 광학 제품은 5.5%, 가공 금속 제품은 4.2%, 기초 의약품은 2.2%,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은 1.7%, 기초 금속은 1.1%, 인체 및 녹음물 복제는 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생산액 지수(VaPI) 역시 5월에 4.5% 상승하며 4월의 4.3%, 2024년 5월의 3.3%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PSA는 이번 성장 가속의 주요 요인으로 식료품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이 전월 11.9%에서 16.4%로 크게 상승한 점을 꼽았다. 식료품 부문은 전체 상승세 중 37.1%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최신 수치를 반영하면,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누적 생산량 지수(VoPI)는 1.8%, 생산액 지수(VaPI)는 2.3%를 기록했다.

설비 가동률(capacity utilization) 측면에서는 5월 평균 가동률이 76.9%로 집계됐다. 이 중 34.9%의 사업체는 90%~100%의 전면 가동률로 운영 중이며, 40.7%는 70%~89%의 가동률, 24.4%는 70% 미만의 가동률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OL,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51853/ph-manufacturing-posts-faster-growth-in-may-2025/>



FILE PHOTO

단체들과 정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속도전

July 07,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FILE: November 27, 2024] Stacks of container vans fill the Bureau of Customs compound in South Pier as trucks move in and out.

필리핀의 주요 무역 단체들과 관련 정부 기관들이 워싱턴이 부과한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물류 비용 및 기타 무역 수수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실제 영향은 아직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현재 우리는 물류 비용, 항만 요금, 부과된 세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 에누니나 망지오(Enunina Mangio)는 금요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망지오 회장은 필리핀의 물류 비용이 여전히 주변국들에 비해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이번 검토가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2017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의 물류비는 전체 상품 비용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아시아조달공급연구소(PASIA)의 찰리 빌라세뇨르(Charlie Villaseñor) 회장이 한 물류 포럼에서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물류 비용은 상품에 따라 28~35%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물류 경쟁력이 아세안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보세요. 안타깝게도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를 보면 필리핀의 순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PCCI 회장 망지오는 “다른 나라들의 물류 비용과 비교하면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역비, 세관 수수료 등도 포함되며, 현재 모두 제검토 중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 인상을 물류비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망지오 회장은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또한 필리핀 세관청(BOC)과 필리핀항만청(PPA)이 여러 무역 단체들의 문제 제기 이후, 국내 물류비 상승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실 제가 말한 ‘연말까지’ 라는 일정은 굉장히 여유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실 30일에서 60일 안에 이 검토가 끝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걸 필렉스포트(Philexport: 필리핀 수출업협회)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일이고, 이들은 현재 PPA와 협력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망지오 회장은 덧붙였다.

망지오 회장은 이번 검토에는 선박 운송 요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PCCI, 필렉스포트, 필리핀고용주총연합(Employers’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은 워싱턴이 지난 4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부터 물류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서한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PCCI는 해당 서한의 사본을 언론에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

Image credits: **Bernard Test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07/groups-govt-racing-to-cut-logistics-cost/>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Be part of the **14th Arangkada Philippines Annual Forum**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SEPTEMBER 25-26, 2025 | MARRIOTT GRAND BALLROOM

JOIN US FOR TWO IMMERSIVE DAYS OF

**POLICY
DISCUSSIONS**

Hear from top policymakers,
business leaders, and experts

**BREAKOUT
SESSIONS**

Choose from three focused
discussions on priority sectors

**BOOTH
EXHIBITS**

Visit exhibits by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INDUSTRY
TALKS**

Hear invaluable insights from
industry experts and
government leaders



REGISTER NOW!

Visit 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view the agenda,
learn about our new *Immersive Investors Pass*, and secure your slot!

ORGANIZED BY: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https://www.facebook.com/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https://www.instagram.com/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https://www.x.com/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https://www.linkedin.com/company/ArangkadaPhilippines)

필리핀 외국상공회의소 합동위원회 (Joint Foreign Chambers, JFC)의 6개 회원 기관은 **2025 아랑카다(Arangkada) 필리핀 투자 포럼**의 등록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은 2012년부터 필리핀 내 투자, 경제 개혁, 포용적 성장에 대한 고위급 논의를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올해 포럼은 **2025년 9월 25일(목)과 26일(금)**, **파사이스 메리어트 그랜드 볼룸 (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언론계의 저명한 인사 수백 명이 모여 투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전략과 비즈니스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JFC가 선정한 7대 유망 산업인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 인프라, 제조 및 물류, 관광, 핵심 광물, 창의 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포럼 첫째 날에는 정부 및 기업 고위 관계자들의 연설과 함께, 해당 7개 분야에 대한 분과 세션이 마련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 간(B2B), 기업-정부 간(B2G) 네트워킹 기회, 부스 전시를 통한 제품 및 사업 시연,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를 다루는 산업별 심층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필 상공회의소(KCCP) 사무국에 전화(+632-8885-7342) 또는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JULY 30, 2025
THE MANILA SOUTHWOODS
LEGENDS COURSE

Play for your Team and have a chance to win a RT ticket to North America and 1 RT ticket to Asia sponsored by:



Golf Cart Sponsors:

ASCENSION



THE ALL AMERICAS TEAM
THE ALL ASIA & PACIFIC TEAM
THE ALL EUROPE TEAM

Organized by: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Philippines

Supported by:



LOVE THE PHILIPPINES



In cooperation with:



Scan to register!

TOURNAMENT FEE:

INCLUDING GREEN FEE, CADDIE FEE
 GOLF CART (SHARING), LUNCH
 GIVE-AWAYS AND 1 RAFFLE STUB

P10,000 PER PLAYER

NOTE: 30% DISCOUNT FOR MSGCC MEMBERS

Gold Sponsors:



Silver Sponsors:



Bronze Sponsors:



Logistics, Raffle & Give-away Sponsors:



Media Partners:

